

더 끝었다간 광주 대중교통 시스템 혁신 물 건너간다

이용섭 시장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시한 못 박은 배경

이용섭 광주시장이 2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에 대해 설명하며, 11월 10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을 둘러싼 16년간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론화가 '건설 찬반'을 묻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자칫 그 결과에 따라 또다른 후폭풍이 우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시장으로서 책임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다시 표류하게 한다는 일부의 지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건설 찬반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대책을 내놓아야 할 광주시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찬성'으로 결정되면 지하를 열게 파는 저심도 지하철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이 시정, 버스터미널 등 주요 거점을 지날 수 있도록 노선 일부 수정 또는 지선의 신속한 착공 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반대'로 결정되면 적자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간선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의 대중교통 중심 도시교통 시스템 정착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미래 교통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 기능이 제한적인 도시철도 1호선을 보완하며 명실상부하게 광주 공공(대중)교통시스템의 간선 기능을 해야 할 2호선(순환선)의 신설이 없다면 현재

찬반 논쟁으로 후폭풍 우려

2호선 없인 1호선 기능 못하고

버스 준공영제 폐지도 검토해야

운영중인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정지 및 폐지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과 시내버스가 광주 인구의 5분의 4가 거주하는 광주 외곽 택지 지구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도시철도 1호선 및 시내버스의 이용자가 급감, 매년 광주시의 현재 투입 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공교통 시스템을 이용해 택지 지구 간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환승 시간까지 고려할 때 최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 소요된다. 외곽 택지지구 거주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반해 공공교통서비스는 크게 미흡해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등의 대학생들까지 대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광주가 '승용차 중심 도시'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도시철도 1호선 지원금은 각각 563억원, 454억3400만원으로 모두 합쳐 1017억3400만원에 이른다. 2019년 준공영제 지원금은 604억원, 도시철도 1호선

지원금은 491억4100만원으로 매년 5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승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손실뿐만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역시 고스란히 시의 몫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공교통에 대한 획기적인 혁신 없이는 지원금 규모가 갈수록 급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동 인구, 거점 등을 감안하지 못한 채 동서를 가로지르는 1호선과 구도심을 중심으로 짜여진 시내버스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이처럼 공공교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너도나도 승용차를 사면서 자동차 급증에 따라 지역 내 교통체증 정도 및 장소도 늘고 있다.

2018년 8월 말 기준 광주의 자동차 수는 65만9551대로, 8년 전인 2010년 51만 8477대에서 무려 14만1074대가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교통이 제 기능을 못하면서 자동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공공교통의 편의성의 혁신적인 증진 없이는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임성기 광주도시재생연구소 소장은 "적어도 광주에서 공공교통을 통해 1시간 이내로 이어주는 간선 기능의 교통수단이 시급하다"며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나 노면전차는 간선보다는 지선 교통 수단으로 어울리며,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BRT



이용섭 광주시장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16년간 찬반 논쟁이 반복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순환기능을 맡는 2호선이 없을 경우 간선 기능을 못하며 매년 시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1호선, 구도심 중심으로 노선을 설정해 광주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외곽 택지지구를 연결하지 못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중지나 폐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철도 1호선 평등역 인근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 노면전차는 3차선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광주의 도로 여건을 감안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2003년 도시철도 1호선을 보완하는 순환선 기능의 2호선을 계획했으나 이후 16년간 찬반 논쟁이 반복돼 왔다. 민선 6기 광주시는 2조579억원을 투입해

전체 연장은 41.9km의 순환선을 1~3단계에 걸쳐 2023년, 2024년, 2025년 각각 개통할 예정이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종식 목포시장 39억원·이동현 전남도의원 67억원 최다

광주·전남 6·13 지방선거 당선자 68명 신규 재산공개
이용섭 시장 4억 1000만원, 김영록 지사 8억 7400만원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광주·전남 단체장과 시·도의원으로 진출한 정치인 68명 중 김종식 목포시장(39억원)과 이동현 전남도의원(67억원)이 각각 단체장과 광역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27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6·1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현황에 따르면 광주는 시장 1명·구청장 4명·시의원 13명 등 18명이 재산을 새로 신고했다. 전남은 도지사 1명·교육감 1명·시장군수 10명·도의원 38명 등 모두 50명이 재산을 신규 등록했다.

광역단체장 중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4억1000만원, 김영록 전남지사가 8억 7400만원, 장석웅 전남교육감이 -2억 4000만원을 신고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서울 아파트(133㎡) 5억7000만원, 본인 명의의 전남 합평 토지(4600㎡), 제네시스 승용차, 예금 1억3000만원을 신고했다. 지방선거 자금으로 3억7000만원을 대출하는 등 3억9000만원의 채무가 발생했는데 선거비용을 보전받아 채무의 상당 부분을 상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청장 중에는 문인 북구청장이 9억 3000만원으로 신고액이 가장 많았고 서대석 서구청장은 7억7000만원, 김삼호 광산구청장 4억7000만원, 김병내 남구청장 3억2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직전 시의원으로서 신규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지방선거 후보 당시 신고액은 5600만원이었다. 서대석 서구청장은 예금 신고액이 5억9000만원이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직 무렵 15억6300여만원을 신고했지만 예금(4억9000여만원) 등 6억 8800여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2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장 교육감은 선거 준비과정에서 사인간 2억원, 광주은행 2억5000만원 등 모두 4억5000만원 채무를 보유해 전체 재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는 김종식 목포시장이 39억4000여만원을 신고했고, 박우량 신안군수 19억9500여만원, 김철우 보성군수 16억1000여만원, 송귀근 고흥군수 13억7100여만원 등 이번에 재산을 신고한 기초단체장 10명 가운데 6명이 10억원 이상을 신고했다.

전남도의회 의원 가운데는 이동현 의원이 67억5000여만원을 신고해 전국 신고대상 광역의원 523명 가운데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오광목 기자 kroh@kwangju.co.kr

"흑산공항 환경 심의 연기" 전남도 국립공원위에 요청

전남도가 흑산공항 건설 관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국립공원위원회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환경 문제만을 심의해야 할 국립공원위원회가 경제성·안전성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이전 개최 예정인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이날 환경부·국토교통부·서울지방항공청에 발송했다. 국립공원 위는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전남도는 생태·환경 분야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립공원위가 환경성뿐 아니라 경제성·안전성 문제까지 제기하는 것은 공정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립공원위원 25명 가운데 15명을 차지하는 민간위원 다수가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표결이 이뤄질 경우 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속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정욱 기자 jwpark@

제14세 & 세계 & 경제

해외여행으로 처음 간 나라는 중국이다. 솔직히 처음 갔을 땐 새로운 환경 때문에 두려웠다. 나에게 별로 재미있지는 않았던 기억이다. 하지만 현지인과 한마디 대화를 하게 되면서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다. 대화를 하기 전의 나와 대화를 하고 난 나 사이에는 경계선이 있는 것 같다.

소재훈 / 가고 싶은 곳: 외할머니 집

휴대폰 배터리 중 39%와 40%는 단 1% 차이에도 불구하고 40%일 때는 좀 더 여유 있지만, 39%일 때는 배터리가 훨씬 적게 느껴지고, 걱정되기 시작한다.

황시현 / 미래의 꿈: 의사가 되어 부모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보답하고 싶다.

광주 시내 중학교에서 특별수업을 진행한 후 중2학생들(만14세)에게 주변에 있는 '경계선'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고 작은 그들의 세계를 도대체 무엇이 가로막고 있을까요?
시타미치 모토유키(작가) / 2018광주비엔날레
*이 프로젝트는 광주일보와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함께합니다. 작품이 실린 신문은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 됩니다.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연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주최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주관 The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에서 장애인기업을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등록 장애인기업
- ▶ 지원내용 ▶ 홍보동영상제작 · 카탈로그제작 · 온라인마케팅 · 경영컨설팅
- ▶ 모집기간 ▶ 2018. 9. 21.(금) ~ 10. 05.(금)
- ▶ 신청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공고 / 공지 확인
- ▶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지역센터 박진모매니저 (062)971-8331